

# 스웨덴 헤르셀 생태마을의 주민참여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Residents' Involvement in Skärkäll Ecovillage in Sweden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최정신\*\*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

Professor: Choi, Jung-Shin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ctual condition of residents' involvement of Skärkäll ecovillage in Sweden by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residents. This study, hopefully, could contribute to offer useful information for forming ecovillage, as well as awakening about ecovillage movement to the public in Korea. The interviews were fulfilled during spring of 2010 in Göteborg and Skärkäll ecovillage in Swed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overall residents' involvement by self-evaluation, everybody agrees with that residents' involvement was quite excellent during forming stage of the village, while it has been notably decreased now in running stage. It reveals there is a gap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2) Concerning decision making method, they use majority decision instead of consensus, since only 9 households of 20 are residing there all year around, it is hardly possible to assemble all the residents in the meeting. In Accordance with problematic conflicts in the village recently, development of socialization with others and education of communication skill for residents probably could be helpful to resolve conflicts among residents in long term. 3) In terms of evaluation of ecovillage movement in Skärkäll ecovillage, it is the fact that many residents live less self-sufficiently, more energy consumed than the ideology pursuits. Also, they live with close connections with conventional society. Nevertheless, the efforts they are willing to practice 3R principles (Recycle, Reuse, Reduction) have to be highly respected, if we consider its educational influence to environmental movement for the conventional society.

---

▲주요어(Key Words) : 생태마을(Ecovillage),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스웨덴(Sweden), 환경운동(Environmental movement), 주민참여(Residents' involvement)

---

\* 본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교신저자 : 최정신 (E-mail: jjschoi@catholic.ac.kr).

\*\*\* Acknowledgements.

I am grateful to all interviewers in Skärkäll ecovillage, who shared their experiences with me for my research. In addition, I would like to thank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in Göteborg Sweden, which supported me to conduct this research in 2010.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는 오늘날 부유한 구미 국가들 사이에서 기존의 마을중심의 생활공동체 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의 파괴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화에 의해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반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자원고갈과 기후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 인류가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태 순환과 보존, 사회적 조화와 통합, 경제균형과 안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각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웃 주민들과의 삶속에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야기된 계획공동체 운동(intentional community movement)은 20세기의 소비지향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다른 계획공동체와 더불어 생태마을은 1970년대 이래로 꾸준히 개발되어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우간다, 인도, 미국, 호주 등지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미래를 걱정하는 선구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Lucas, 2006).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쓰레기, 오염, 경쟁, 그리고 현대적인 생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생태마을(ecovillage)을 만들고 있으며 이 기본이념의 확산은 세계적인 경제의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시장에서 급속한 산업국가로 등장한 이래 자연생태계와 인간적인 생활환경의 위협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태마을 운동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국내에서의 생태마을 운동은 환경파괴와 산업 문명의 한계에 따른 절박한 생명 위기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활성화에 대한 각성을 사회적으로 고취시키고, 특히 도시 젊은이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내어 농촌 활성화의 일꾼이 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물부에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귀농이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1)</sup>. 이를 위해 농림수산물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 교육, 컨설팅, 주택문제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의 생태마을운동은 아직 농촌만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생활전반에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태마을은 계획공동체의 일종으로, 계획공동체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기존 주거단지에 비하여 주민 간에 더 긴밀한 협동체제를 이루며 생활하는 새로운 주거대안이라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의 의견반영이 가장 요구되는 주거이다. 국내에서는 생태마을을 비롯한 계획공동체의 실현이 초기상황이므로 건축, 도시설계, 주거학 분야에서 생태마을의 물리적 계획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생태마을의 주민들과 접촉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피부에 닿는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많은 계획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설립초기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의, 이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의 생태마을인 웨르셀 마을을 대상으로 그 설립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주민참여의 방법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생태마을 운동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국내의 생태마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주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비해야 할 점과 생태마을 운동이 기존사회에 기여할 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웨르셀 마을 형성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웨르셀 마을의 설립과정과 운영에서의 주민참여 방법과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웨르셀 마을 설립초기의 이념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는가?

귀농운동본부, 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농민회(www.canong.or.kr), 전국 흙집짓기 운동본부(www.ecovillage.co.kr) 등이 있다.

2) 서울신문 2009.06.27일자 3면.

1) <http://211.115.218.173>. 전국귀농운동본부 설립 취지문. 국내에서 생태운동을 추진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

<연구문제 4> 웨르셀 마을의 현실이 국내의 계획공동체운동과 환경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3. 조사대상의 선정,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조사 대상지역은 환경운동이 정부와 일반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덕목으로 실천되고 있는 스웨덴(최정신, 2001)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환경운동이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서 물자재순환(Recycling), 물자재사용(Reuse), 물자절약(Reducing)의 “3R” 운동의 실천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러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생태마을의 설립도 활발한데, 스웨덴의 계획공동체 웹사이트<sup>3)</sup>를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설립된 코하우징과 생태마을 76개의 홈페이지가 수록되어있고, 그 중 40개 정도가 생태마을(ecobyar)로 표기되어있다. 그러나 계획공동체의 경우에 코하우징과 생태마을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여 사실상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기 공동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계획공동체끼리의 정보교환은 물론,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웨르셀 생태마을과 같이 이 네트워크에 수록되지 않은 코하우징과 생태마을도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스웨덴에 설립된 실제 계획공동체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층면접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스웨덴 서북부 지역인 보후슬렌(Bohuslän)에 위치한 웨르셀(Skärkäll) 마을을 선정하였다. 이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1) 이 마을의 형성과정의 스웨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점(주민 면담 내용 참조), 2) 지방정부 대신에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설립의 주체가 된 점, 3) 마을이 설립된 1995년 이래 2010년 현재까지 15년이 경과하여 주민생활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웨르셀 마을은 형성과정에서 미래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992년에 “흙집 짓기”의 기술적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그 당시 학계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Drakenberg et al., 1992; Windahl, 1993; Birgersson, 2000). 또한 마을의 설립주체에 있어서 주민주도형의 주택단지가 많은 덴마크와 달리, 지방정부 주도형 주택단지가 일반화 되어 있는 스웨덴에서(최정신·이연폴손, 2006) 웨르셀 마을이 미래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

<표 1> 면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면담일자

이름	성별	직업	연령	면담일자
L1	여	전직 교수, 건축가	70대	3.24 오전
L2	여	전직 교수, 건축가	60대	3.14 저녁
H	남	전직 공무원, 건축가, 취미 화가	70대	3.24 오전
B	여	직물 예술가	40대	4.15 저녁
G	남	교사, 취미 화가	50대	5.14 오후

주) 면담자의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 상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로 마을을 설립했다는 점은 주민참여를 주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면담 대상자로는 마을의 형성단계에서부터 201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주민 5명을 선정하였다(표 1). 웨르셀 마을의 전체 주민은 28명이지만 이 중에는 최근에 이주하여 설립당시의 과정을 모르는 주민도 있고, 일 년 중 극히 짧은 기간만 이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선정된 면담 대상자 5명은 마을의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마을의 생활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된다.

면담은 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내용이 가능한 한 통일되고 객관성을 가지도록 유의하였으나 자유면담도 겸하였다. 면담은 편의상 영어로, 2010년 3월~5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제의 특성상 양적 사회조사만으로는 심층적인 사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적 연구의 면담을 이용한 사례조사(case study)방법을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계획공동체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란 생태마을(ecovillage), 코하우징(cohousing), 커뮌(commune), 코퍼러티브 하우스링(cooperative housing), 코퍼러티브 스튜던트 하우스링(cooperative student housing), 도시의 협동주택(urban cooperative) 등과 같이 공동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sup>4)</sup>. 계획공동체는 주거단지 개발업자가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통상적인 마을과는 달리 특별한 의도와 디자인 마인드를 가진 그룹에 의하여 형성된다.

3) <http://hem.www.fyristorg.com-Kollektivhus och Ekobyar in Sverige>

4) [www.ic.org](http://www.ic.org)

계획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와 생활이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작업하며 대부분 대지와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한다. 이들은 현대생활에서 없어진 공동체 의식을 계획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에 새로이 붙여넣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협동한다.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현대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의식, 즉 소속감과 상호협조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가장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부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과 접근방식에 대하여 허용적이며 자신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간혹 계획공동체의 기원을 1960년대에 성행했던 히피(hippie)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사라진 여피(yuppie)에서 근원을 찾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혀 잘못된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실로 수 천 개의 공동체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혈연관계를 벗어난 확대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생활은 근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천여 년 전 농경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생활방식이다. 고대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혈연가족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협동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립된 핵가족의 출현은 산업화의 발달과 빠르고 값싼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극히 최근의 현상으로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이웃관계가 약화되고 이주가 잦아지게 되었다(Lucas, 2006).

계획공동체 중에는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종교적인 영성공동체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비종교적인 공동체도 다수 있다. 비종교적인 공동체 중에는 지구를 평화적이고 생태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재창조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종교적인 공동체 중에는 세계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는 대신에 자기 그룹 안에서만 자급자족적이고 단순하며 평온한 생활에 안주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고립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 가족, 그리고 이웃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문호를 개방하며 친근감과 신뢰감이 깊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많은 계획공동체에서는 주민 중에 학생이나 교사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을 공립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대신 공동체 안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Choi, 2008).

계획공동체의 네트워크 중에서 종교적 성격을 초월한 대표적인 단체는 FIC(계획공동체연합: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로, 이는 공동체의 형태에 관계없이 공동체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네트워크이다. 그 외의 중요한 조직은 평등, 수입 분배, 비폭력, 협동, 생태, 그리고 지속가능성

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위해 조직된 FEC(평등주의 커뮤니티 연합: Federation of Egalitarian Communities)가 있다. FEC는 소위 “~주의” (예를 들면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고전주의, 연령주의 등)를 초월하여 정체성과 회원 간의 지속적인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의 계획공동체운동은 그 회원들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며 프라이버시와 협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공동체의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 주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계획공동체의 생활이 누구에게나 어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사회적 실험이 결국은 새로운 사회와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Kozeny, 1996).

## 2. 생태마을

생태마을(ecovillage)이라는 용어는 불과 30년 전 만 해도 흔히 사용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에코빌리지”라는 단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생태마을은 그 개념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간개발을 지원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에 통합되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인간적인 척도의 정주지”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말한다(Lucas, 2006). 또한 생태마을이란 “질”을 추구하며 사는 장소, 즉 마을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마을이란 단지 생활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이 출생하고 죽으며, 일하고 놀며, 물자와 서비스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건강한 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마을 안에서 사는 이웃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그 규모가 인간적인 스케일(human scale)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나 마을을 표현하는 데 “생태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생태마을이 비전이고 아이디어이며 목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고대로부터 전수된 몇몇의 토착민 마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생태마을이라고 지칭할 만한 마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생활에 재통합하면서 살기를 희망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5) www.ic.org

6) www.ic.org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사람에 따라서 수용력, 에너지의 흐름, 생태적 시스템, 디자인 전략 등과 같은 과학적 용어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영성, 지혜, 평등, 의사결정과정, 총체주의(holism), 장소성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로 설명하기도 한다. 계획공동체의 90% 이상에서는 물자 재사용과 퇴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고 퍼머컬처(permaculture)의 개념, 유기농 정원, 중수(grey water)이용, 태양열과 풍력, 패시브 솔라디자인 등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환경, 농업, 기술을 교육하는 실습장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생태마을의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단순화하고 생태적인 디자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지구 위에 생태적인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적게 남기기를 시도한다.

### 3. 계획공동체의 주민생활과 공동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는 계획공동체의 주민생활과 공동활동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표 2). 검토 자료는 본 연구 분야와 관련이 깊은 국내학술지와 그 외에 외국에서 출판된 논문들을 이용하였다. 검색 결과, 계획공동체의 물리적 계획이나 디자인을 주제로 한 논문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 학술지에 비교적 다수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공동체의 주민생활과 공동활동 참여를 주제로 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처음에는 계획공동체 대신에 생태마을로 국한하여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해당 논문이 의외로 적어서 생태마을과 코하우징의 이념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를 같은 범주에 넣는 연구자들이 많았으므로(Konzey, 1996; Meltzer, 2000; Wann, 2005; Dawson, 2006; Lucas, 2006) 생태마을과 코하우징을 포함한 계획공동체의 주민생활과 공동활동 참여로 그 범위를 넓혀서 검색하였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순수하게 물리적 계획이나 디자인만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제외하였다.

계획공동체의 구체적인 주민생활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적었으나 주민생활의 일반적 내용과 배경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계획공동체의 일반적 정보와 코하우징과 생태마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연구(최정신, 2001; Choi, 2008)에서 주민생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었고, 그 외에 코하우징의 주민생활에서 만족도를 측정한 일련의 연구들(최정신, 2003; Choi, 2004; 최정신, 2005; 최정신·조재순, 2006; Glass, 2009)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코하우징 주민의 중요한 이주동기로 안전성 이웃관계,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감소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의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코하우징에서 이주해 나갈 계획이 없이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에 비하여 미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코하우징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는 덴마크에서는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Ambrose, 1993; Jensen, 1994). 노인용 코하우징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다룬 미국의 최근 연구(Glass, 2009)에서는 주민들이 코하우징 생활에서 상호협조를 통하여 비상시에 더욱 안전감을 느끼며 일반 노인주택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코하우징 117개 단지의 일반적 정보를 확인한 후, 이 중 실제로 8개의 코하우징을 현지 방문하여 사례 조사한 연구(조정현·최정신, 2009b)에서는 미국 코하우징 주민들이 한번 입주하면 이주해 나가는 사례가 매우 적어서 주민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생태마을에 대한 자료는 문헌으로 출판된 것은 다량이었으나 연구논문은 코하우징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독일의 생태마을인 보봉 주거단지의 사례를 통하여 마을의 설립과정과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의 실천내용을 다룬 연구(곽유미 등, 2005)와 스웨덴의 웨르셀 생태마을의 설립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연구(Drakenberg et al., 1992; Windahl, 1993)는 생태마을 설립과 주민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계획공동체의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계획공동체의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운영시의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로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페르드크내펜(Färdknäppen) 코하우징의 주민들이 초기설립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참여하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세심하게 추적한 연구(Koyabe, 1994)에서 페르드크내펜은 미래주민과 주택회사, 건축가가 함께 완성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도 몇 편의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태백시에 "학마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디자인에 참여한 사례를 추적하고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실증적 연구(오영식, 2002), 서울 도심의 연립주택단지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코하우징으로 개조하는 연구(한주희·최정신, 2005), 농촌 거주자들을 위하여 농촌형 코하우징을 디자인한 연구(홍서정·전남일, 2004)들이 발표되어 계획공동체의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연구(조정현·최정신, 2009a)로 계획공동체의 설립단계에서 주민참여 워크숍에 관한 논문도 발표되었는데 참여자들이 워크숍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적극적인 의사표현 기술 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

&lt;표 2&gt; 계획공동체의 주민생활과 공동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발표연도 순)

주제	연구자(연도)	논문명
주민 생활	Glass, A.P.(2009).	Aging in a Community of Mutual Support: The Emergence of an Elder Intentional Cohousing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Choi,J.S.(2008).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Life in Foreign Intentional Communities,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Ecovillage and Cohousing.
	최정신·조재순(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의 성별차이.
	최정신(2005).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곽유미·조정현&최정신(2005).	독일 친환경주거 사례연구-프라이브르크 보봉주거단지를 중심으로.
	Choi, J.S.(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최정신(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최정신(2001).	스웨덴의 환경운동과 생태건축 개발 프로젝트의 사례연구.
	Jensen, S.P.(1994).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Ambrose, I.(1993).	Etablering af seniorbofællesskaber, Erfaringer fra tre projekter i Odense (Establishment of Senior Cohousing, Lessons from Projects in Odense).
	Windahl, K.(1993).	Lerjordsbygge på Skärkäll:rapport från en introduktionskurs i lerjordsbygge (Building on Skärkäll: Report of an Introductory Course in Clay Construction).
	Drakenberg, K. · Sonnsjö, M. & Windahl, K.(1992).	Det kretsar kring huset: Skärkäll-en skissprocess med ekologisk inriktning (A Sketching Process with Ecological Intentions).
공동 활동 참여	조정현·최정신(2009a).	코하우징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사례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조정현·최정신(2009b).	미국 코하우징의 주민참여 사례연구.
	Cho, J.H. · Lee, D.S. & Choi, J.S.(2008).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mmon Activities in an Intentional Community: The Case of the <i>Mindre</i> Community.
	Kwak, Y.M. · Cho, J.H. · Hong, S.J. & Choi,J.S.(2007).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of an Eco-Friendly Village-A Case Study of <i>Ansolgi</i> Village.
	최정신(2007).	한국인 50대의 노인용 코하우징 공유공간과 공동활동에 대한 선호
	한희희·최정신(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제안
	홍서정·전남일(2004).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 계획에 대한 연구.
	Choi,J.S. & Paulsson, J.(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오영식(2002).	이용자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 -태백시 상장동 학 마을 사례.
	Koyabe, I.(1994).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Design of Housing, A Study of Swedish Collective House <i>Färknäppen</i> .

주) 국내의 연구는 본 연구주제와 비교적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대한가정학회에서 출판되는 논문집을 위주로 검색하였음.

다. 그러나 효과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한 도구의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계획공동체 운영시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의 생태마을인 안솔기 마을(Kwak et al., 2007)과 종교공동체인 민들레 마을의 사례연구(Cho et al., 2008)가 발표되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안솔기 마을의 연구에서는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출발한 국내 초창기 생태마을의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게 된 행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동활동 참여 실태 등이 조사되었으나 아직도 주민의 공동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커먼하우스가 없어서 물리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공동체인 민들레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비중이 크고 비종교적 계획공동체에 비하여 주민

의 공동활동 참여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동호인마을, 생태마을, 종교공동체 등을 포함하는 7개 계획공동체 마을의 설립과정과 공동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를 조사한 연구(최정신, 2008; Cho et al., 2008)에서는 종교공동체에서 공동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비교적 의무사항이 적은 동호인 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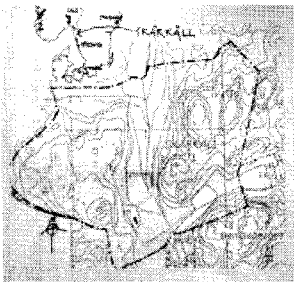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해당주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어서 한정된 연구자들의 자료를 위주로 분석한 점이 아쉬웠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계획공동체의 개발이 초기단계인 이유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문헌이나 비교적 제한된 시간의 현장방문으로도 수행 가능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민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가야 하는 심층적인 연구는 비교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행해야하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III. 연구의 결과

#### 1. 웨르셀 생태마을 형성과정의 특징

##### 1) 마을의 형성과 설립이념



<그림 1> 웨르셀 마을 지도  
(출처:Drakenberg,1992,p.8)



<그림 2> 2010년 현재  
웨르셀 마을의 전경

웨르셀 계곡은 엘레스보리(Gerlesborg) 예술학교와 코퍼러티브 예술가 워크숍에서 가까운 보후슬란(Bohuslän)에 위치하고 있다. 이 근처에는 오래 전부터 예술학교와 예술가 작업장이 있었으나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과 스튜디오가 없어서 원래의 대지주인과 예술학교 회원들 몇 명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가들을 위한 영구적인 마을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웨르셀 지역은 원래 오래된 농경지로 많은 고대 유적이 파묻혀 있는 곳으로 1000만 m<sup>2</sup>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이 중 마을은 경작 가능한 땅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이 40만m<sup>2</sup>이다. 마을 중 약 6만m<sup>2</sup>는 숲과 돌산이며 실제 대지면적은 3천5백m<sup>2</sup>이다(그림 1, 2). 웨르셀 마을은 설립 초기부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건과 경작할 수 있는 땅은 가능한 한 농경지로 사용하여 최대한 자급자족하는 조건을 기본이념으로 시작되었다(Drakenberg et al., 1992; L1). 이러한 기본 이념에 따라 1993년 여름에 “노르딕 흙 건축 조직(NOL: Nordiska Organisation för Lerjordsbygge)”의 후원에 의해 흙집 짓기 워크숍을 일주일 간 개최하였다. 워크숍 기간 동안의 활동은 나날이 일지에 기록되었고(Windahl, 1993) 이 마을의 소식은 TV 뉴스에도 소개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B,G)(그림 3). 그 당시에 엘레스보리 예술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어 과학, 예술,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 마을설립에 대한 소문은 급속

하게 퍼져나갔고 처음 마을 설립모임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G) 1989년에 주도적 그룹의 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1989년 당시 마을설립의 최초 목적은 창조적인 예술인들이 모여서 값싸고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적은 돈으로 주민 자력으로 서서히 집을 완성해 가는 것이 마을 설립의 이념이었다(L1, L2,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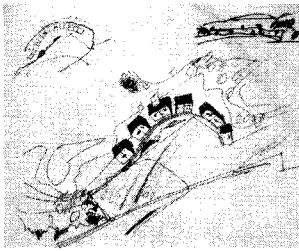
<그림 3> 흙집 짓기 워크숍

(출처: a~d Drakenberg et al., 1992. p.27; e-f Birgersson 촬영)

마을 계획 시 원래부터 계곡의 중심에 있었던 창고는 주민들의 공동활동과 주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 그리고 회의나 파티를 할 수 있는 커먼하우스(common house)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신 원래 현장에 있었던 빨간색의 오두막집이 현재의 커먼하우스로 이용되어 처음 입주하는 주민이 집을 짓는 동안의 임시 숙소 겸 손님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4). 마을의 필지는 모두 24개로 이 중 현재 20가구가 입주하였고 나머지 4개 필지가 남아있다. 각 가구는 자기의 필지에 주택 한 채와 아틀리에 한 채를 지을 수 있다. 초기 마을 계획당시의 주택배치 안과 현재의 주택배치 상황은 <그림 5,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보이는 건물의 수는 주택과 아틀리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물 수는 20개 이상이다.



<그림 4> 커먼하우스(좌)와 공동 창고(우)



<그림 5> 계획초기 웨르셀 마을의 기본 계획도  
(출처: Drakenberg, 1992. p.27)

<그림 6> 2010년 현재 웨르셀 마을의 주택배치도

웨르셀 마을은 설립초기부터 “보타나휘오덴 코퍼러티브(Bottnafjorden cooperative)”라고 불리는 협동조합과 규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마을 주민의 모두가 이 협동조합의 회원은 아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의 연결을 시도한 초기의 이념은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품과 생태적인 일상용품 등을 공급받자는 것이었다.

2) 마을 입주 시의 비전(vision)과 이주동기

웨르셀 마을의 설립이념은 결정되어 있었으나 입주자들이 마을로 이주할 때에 가지고 있던 비전은 각자 달랐다. 즉, 예술가 집단은 영구적인 주거겸용 아틀리에를 가지고 싶었고(B,G), L1과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고 식물을 키워 자급자족하면서 생태적인 생활을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생태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H는 스스로 생태건축을 짓는 취미를 실현하면서 안전감을 느끼며 살고자 하였으며, L2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언젠가 국가의 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땅과 주택을 가지고 싶었다고 하였다.

또한 면담 대상자들이 이 마을을 알고 이주하게 된 동기도 각기 달랐다. B와 G의 경우에는 마을이 세워지기 전부터 엘레소브리 예술학교의 회원으로 여러 가지 워크숍에 함께 참가하다가 초기 마을설립회원이 되면서 이 마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주하게 된 사람들인가 하면, L1과 H처럼 나중에 마을의 이념이 맞아서 생태적인 생활을 하려고 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L2와 같이 친구의 권유로 이주한 사람도 있었다. L1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1960년대부터 인근지역에 썸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웨르셀은 고향과 같이 익숙한 지역이었고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마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L1은 엘레소브리 예술학교에서 개최된 퍼머컬처(permaculture) 코스에 2주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때 G가 같은 그룹에 있어서 서로 알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초에 2년간의 여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생활해 본 후, 남편인 H와 함께 마을

<표 3> 면담 대상자의 이주 시의 비전

면담대상자	이주 시의 비전
L1	자급자족과 생태적인 생활의 실천
L2	미래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계수단
H	집 짓는 취미의 실현과 생태적인 생활의 실천
B	영구적인 주거 겸용 아틀리에 소유
G	영구적인 주거 겸용 아틀리에 소유

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여 1995년에 집을 짓고 이주하였다. 한편, L2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회원은 아니었으나 이 마을의 건축계획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하여 친구인 L1과 H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 후 몇 주간 이 마을의 집을 임대하여 살면서 그들의 권유로 웨르셀 마을에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L2는 그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으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것을 찾아서 혼자만의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이 마을에 집을 짓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웨르셀 마을 이주 시에 면담 대상자가 가졌던 비전과 이주 동기는 각기 달랐다(표 3).

3) 주민구성

2010년 현재, 웨르셀 마을 20가구의 주민은 전체 28명으로, 성인 남자 11명, 여자 15명, 그리고 18세 이하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민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처음 마을 설립 당시에는 이 마을의 주민이 되려면 창조적인 예술작업을 하는 사람만이 입주자격이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예술인들만으로 마을을 세우다보니 그들의 경제력이 취약하여 마을의 성장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나중에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들도 주민으로 합류시키기로 결정하여 현재는 예술인뿐 만 아니라 건축가, 교사, 전직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이웃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보장기금으로 생활하기도 하며,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20가구 중 9가구만 연중 이 마을에 상주하고 나머지는 주로 여름에만 와서 사는 경우가 많다. 어떤 주민은 정기적으로 일년 중 반은 웨르셀 마을에, 나머지 반은 기후가 따뜻한 남유럽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일부 주민들이 이 마을에 상주하지 않는 이유는 L2나 B와 같이 직업상의 출퇴근 문제도 있고, 또한 주택이 통상적인 주거단지과 같이 일시에 완성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어나가는 과정이므로 난방장치가 없어서 겨울에는 거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러한 주민구성의 다양성이 일부 주민 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G와 같이 마을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여름에만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하여 자기들이 마



을관리를 위한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따라서 남아있는 필지에 연중 상주하는 가구가 입주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 2. 웨르셀 마을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과 실태

### 1) 주민참여 방법

웨르셀 마을의 설립과정은 크게 대지구입 단계-->조합구성 단계-->마을계획 단계-->건설과 이주 단계-->생활 단계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로 마을설립을 위하여 1980년에 최초의 대지 소유자가 구입한 대지를 1983년에 초기 회원들이 구입하였다.

이어서 2단계로 1991년에 이코노미 조합(economic association)이 설립되어 법적인 주민의 대변단체가 되었다. 이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조정하였으며 지방정부와 마을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는 동안, 1993년에 미래 주민을 대상으로 흠집 짓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때 미래 주민들이 전문가와 연합하여 진흙으로 집을 짓는 워크숍에 참여하여,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공동 화장실 건물을 지었다. 이 흠집 짓기 워크숍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생태마을에 대한 일반인들의 주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 주민들이 워크숍 과정을 통하여 서로 친숙해지는 계기,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자신들의 집을 스스로 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건축기술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3단계로 마을 전체의 배치에서부터 주민 각자의 주택에 이르기까지의 마을계획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약 5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는 긴 시간의 면담, 수많은 공동작업 참여, 그리고 인내와 노력을 요하는 많은 논의가 동반되었다. 미래주민들은 마을 계획을 위하여 에테보리의 살머스 대학교에서 건축과 교수들을 만나 자문도 받고 긴 토론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이 과정 중에 각기 의견이 다양하고 이를 수합·정리하는 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어떤 주민(B)은 가장 괴롭고 지루한 기간이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B는 중간에 너무 지루하여 아프리카로 떠났다가 마을이 시작될 무렵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주민들이 서로 깊은 수준까지 잘 알고 친숙하게 되었다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L1,B). 이 단계에서 특히 건축가이면서 전직 공무원이었던 H의 노력과 공헌이 컸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문적인 건축가가 아니므로 개인주택의 디자인은 자신이 짓고자 하는 주택의 그림을 스스로 그려오면 H가 이에 대해 충고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L2의 경우에는 마을에 주택이 이미 9~10채 지어져 있었을 때 합류하게 되었고, 마을 설립초기에 운영위원회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오랫동안 총무역할을 하였다. 그는 주택을 지을 때 이를 위한 회의, 도로, 급·배수시설 계획, 전기배선 등의 계획과 작업을 위한 회의 등, 공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계획과 건설이 끝나고 4단계인 이주 단계에 다다랐으나 건설과 이주단계는 마을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주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5단계인 생활 단계인데 각 단계별 활동이 한 가구씩 서서히 이루어졌으므로 늦게 합류한 주민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주한 주민에 비하여 마을의 설립 이념과 비전에 대한 이해가 적고 공동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도 약한 것이 사실이다(L1).

### 2) 주민조직 체계

웨르셀 마을의 주민조직에는 두 개의 조합이 있다. 하나는 법적인 서류작업과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이코노미 조합(economic associ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내에서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내용을 결정하는 비공식적 단체인 운영위원회이다(L1, L2).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규약이나 입주 희망자의 선택, 전체주민회의 소집 등의 사안을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비공식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마을 내의 자치규약 일 뿐, 이코노미 조합과 같이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 3) 웨르셀 마을의 설립을 위한 지원

웨르셀 마을의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이 마을이 속해 있는 타눔 지방정부(Tanums Kommune)로부터 받았다. 타눔 지방정부는 생태적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웨르셀 마을 개발의 아이디어에 적극 동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존하는 도심과 연결되지 않은 웨르셀 마을만의 자급자족하는 생태마을을 개발하라는 방침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마을은 기존 지방자치체의 기반시설 시스템과는 별도로 마을 자체적으로 급·배수시설, 도로망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생태마을의 설립이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물질주의적 고성장 사회에 대한 비판 운동의 일환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이념에 부응하므로 초기 준비 단계부터 생태적인 건축과 생활의 실천 사례로서 살머스 대학교와 긴밀한 협동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은 점이였다.

개인적 지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예술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 많지 않았다. 웨르셀 마을에 대지를 사고 집을 짓기 위하여 대여 없이 서서히 거의 자급자족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으나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은행의 대여를 받기 위



<그림 7> 주민간의 협동으로 집짓기

구입하였고, 주택을 짓는 데에 순수 재료비만 2500크로나(약 400,000원)를 소비하였다. 생태마을에서는 집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주민 간에 서로 무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노동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그림 7).

4) 개인주택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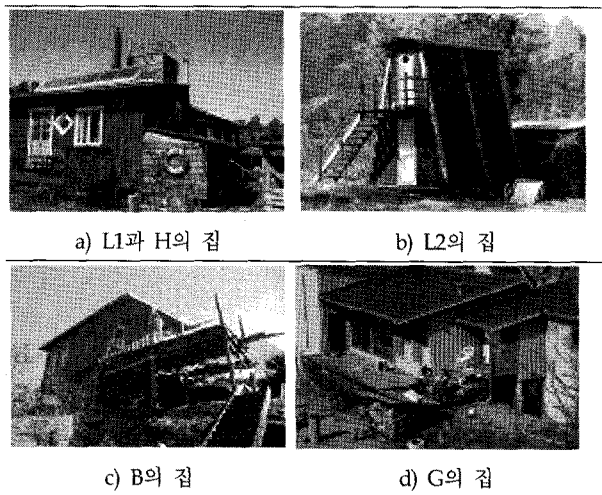
개인주택은 주민의 형편에 맞추어 서서히 짓고 노동력은 주민 상호간에 무료로 제공한다. 건축 재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벼룩시장 등에서 재활용 재료를 구입하여 수집해 두었다가 건축 시에 사용한다. 따라서 문, 창문, 보온재, 가구, 집기 등도 대부분 재활용 재료이다. 생태마을의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건축허가 시에 주택설계도를 한꺼번에 완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짓는 것이 특징이다. 은퇴 전에 살머스 대학교에서 건축과 교수였던 L1과 건축가이며 공무원이었던 H부부의 집은 마치 생태건축의 실험장과도 같다. 그들의 주택은 연중 상주가 가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마을의 커먼하우스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난방시설과 부엌, 화장실, 욕실, 온실, 여분의 방, 창고, 별채의 손님방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지붕에는

잔디지붕, 태양열 집열판 등이 설치되어서 욕실의 온수와 주택 난방의 일부를 충당한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효식 화장실이다. 벽체, 창문, 문, 가구 등,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재활용자재이며 보온재도 톱밥과 잘게 자른 신문지를 모아서 수년간 이중벽 사이에 채워서 충전하였다. 옥상에는 여름날 오후에 시원하게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다(그림 8-a).

L2의 주택은 목조 패널로 지은, 마치 장난감처럼 작은 집으로 대부분 H의 도움으로 지었다. 아직은 부엌과 욕실이 없이 일층에는 거실, 이층에는 겨우 매트리스 하나를 깔고 취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다. 처음에 간단한 펼친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평면을 그리고, 거기에 4개의 사다리꼴 벽체를 세워서 일층보다 이층의 바닥면적이 좁아지게 하였고, 계단은 외부에 설치하였다. 벽에는 최소한의 문과 창만 뚫었고 아직 난방시설은 설치하지 못하였다. 여름에 간단히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옥외에 간이 선반을 매고 개수대를 설치하였으며 물은 지하수를 사용한다. 일층 거실에 전기를 연결하여 전기버너와 오븐을 준비하여 최소한의 조리용 가열 장치를 준비해 두었다. 앞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부엌공간을 증축할 계획이며 우선 집 앞에 간단한 원룸형의 아틀리에를 먼저 지었다. 이 아틀리에에는 현재 취미화가인 H의 그림을 상설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8-b).

B의 집은 암반 위에 20㎡ 정도의 규모로 지은 목조주택이다. 나무로 된 외부계단을 오르면 암반 위에 나무 바닥을 깔아 널찍한 테라스를 밟고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실내는 스튜디오(studio) 형식으로 아래층은 염색작업을 할 수 있는 아틀리에로 사용하고, 로프트(loft)를 설치하여 매트리스를 깔고 침실을 대용하고 있다. 아래층에는 간단한 세면대와 개수대, 소형 냉장고가 있어서 최소한의 조리가 가능하다. 아직도 계속해서 공사 중인 테라스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으면 온 동네가 눈 아래 내려다보인다. 작은 집이지만 사방으로 창문을 내어 밝고 경쾌하므로 B는 이 집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B는 건축가가 아니므로 처음에 자기가 서투른 솜씨로 평면도를 그린 후, 그것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실제의 집으로 지어졌을 때,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집을 현실로 보게 되니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다고 한다. 그녀는 시간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스스로 집을 지으므로 1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있다. B는 직업이 직물에 술가이고 평상시에는 예테보리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염색코스를 가르쳐 생업에 종사하므로 웨르셀 마을에는 여름에만 와서 거주한다(그림 8-c).

G는 직업이 리서치 겸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부인도 교사이다. G의 집은 목재로 지어졌고 연중 상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들은 시간과 능력이 없어서 다른 주민들처럼 스스로 집을 짓는 대신 전문적인 목



a) L1과 H의 집

b) L2의 집

c) B의 집

d) G의 집

<그림 8> 웨르셀 마을의 개인주택

수를 고용하여 일시에 완성된 주택을 지었으나 그 외의 다른 작업들은 가능하면 본인들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능한 한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건축하고 회색의 페인트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G의 주택은 보통 마을의 일반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그림 8-d).

5) 건축 재료의 사용과 생태적인 생활에 대한 규제

웨르셀 마을에 주택을 자을 때 건축 재료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그러나 원래 생태마을로 시작하였으므로 지나치게 인공적인 재료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권장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어울리는 천연재료를 선택하여 집을 짓는다. 주로 목재나 진흙을 많이 사용하고 콘크리트와 같은 도시적이고 인공적인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L2). 주택의 크기와 디자인도 모두 개인적인 취향과 능력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인 생활에 대한 규제는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가능한 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L2).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적게 사용한다든가, 합성세제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노력하고, 가구나 일반가재도구 등도 재활용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3. 웨르셀 마을 운영에서의 주민참여 방법과 실태

1) 주민 공동활동

면담 대상자 모두(L1, L2, H, B, G) 웨르셀 마을 설립초기에는 비교적 활발한 주민 공동활동이 있어서 주민 간에 매우 친하게 지냈으나 현재는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이 점을 아쉬워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공동활동은 연별, 월별, 또는 부정기적으로 있다. 1년에 한번 있는 작업주일에는 마을 전체의 도로를 정비하거나 배수용 도랑을 만드는 등, 비교적 큰 작업들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매월 한 번 있는 작업 일에는 잔디 자르기, 미팅, 파티 준비 등 계절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마을 입주 초기에는 여자 주민들끼리 자주 파티준비를 함께 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B).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주민전체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지만 주로 여름에만 웨르셀 마을에 와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아서 주민전체회의를 열기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업그룹, 예를 들면 숲, 수목,

정원 등을 관리하는 수목관리 위원회, 여름에 열리는 미드섬머 축제(midsummer festival)를 진행하는 축제위원회 등이 있어서 필요시마다 작업에 참여한다. 공동식사도 마을 설립 초기에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공동활동 참여량에 대해서는 개인별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L1). 대부분의 연중 상시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단기간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공동활동과 공동작업 참여량도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 점이 주민 간에 불만의 요소로 노출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나 기타 마을의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비를 지불하지 않고 주민 간에 무상으로 일을 분담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일부 남성주민 중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작업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작업을 위해 여성들이 담당하는 식사준비, 간식준비 등에 대한 기여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불만도 야기된다(L1, L2, B, G). 이러한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여름에만 거주하는 주민, 또는 마을에 상주하더라도 공동활동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여 공동활동에의 참여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을 공동비용의 지불에 대해서는 개인적 상황 예를 들면 연중 상주하는 가구와 여름에만 거주하는 가구, 또는 단기간만 거주하는 가구 등에 따라서 각기 상황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부담하는 액수도 다르다. 예를 들면 월별 공동비용이 100크로나(16,000원)이므로 연중 상주 가구는 1,200크로나(192,000원), 3개월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300크로나(48,000원)를 지불한다(L2).

2) 커먼하우스의 이용과 관리

주민들의 공동활동은 마을 입구에 있는 커먼하우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거실, 부엌, 샤워실, 침실, 식당 겸 회의실, 창고가 있고 마당에는 오픈 화덕이 있어서 여름에는 바비큐도 할 수 있다. 마을의 연락사항, 공중전화, 팩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공동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그 외에 커먼하우스는 이 마을에 이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짓는 동안 임시 숙소로 이용하거나 새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시험적인 생활공간, 주민 공동활동 공간, 또는 손님용 숙소로도 이용된다(L1,L2). 공동 창고는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큰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사용할 건축자재, 예술작업과 전시회를 위한 재료보관에 사용된다.

L1과 H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택 내에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커먼하우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커먼하우스나 공동창고를 주민들이 나누어 관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전시작

<표 4> 공동활동의 종류와 빈도

종류	빈도
작업 주일(working week)	매년 1주일 (6월 중)
작업 일(working day)	매월 첫째 토요일
공동식사(common meal)	매주 화요일 저녁. 현재는 없음
작업그룹활동(working group)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

업 재료나 건축자재의 보관을 위하여 비교적 공동창고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 3) 마을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선택과 절차

마을에 이주할 주민을 구하기 위하여 따로 선전하는 일은 없고 대부분은 희망자가 지인을 통하여 알아서 찾아온다. 잠재적 이주 주민의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즉, 이주 희망자가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1년 동안 시험적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이웃주민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운영위원회, 공동작업, 공동활동 참여 등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기존 주민과 똑같이 실행해 보는 기회가 된다. 이 시험적 거주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정식 회원이 되어 마을에 이주하기를 희망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으로 허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L1, L2).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주를 고려하고 왔던 사람이 마을의 이념, 생태적인 생활방식, 공동활동 참여 등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개인은 이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L1, L2).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주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설령 운영위원회에서 이주를 거부당하더라도 본인이 부득이 이주해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따로 거부할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잠재적 주민선택 방법은 다른 계획공동체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사실상 법적인 권한은 없다.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당한 희망자가 이주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고발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처서 환영받지 못한 주민이 합류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계속 주민간의 갈등요소가 되므로 이 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 4) 의사결정 방법과 주민간의 갈등

각 작업 그룹에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마을 공동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마을에 상주하는 가구가 많지 않으므로 주민 전체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제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수결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L2). 그러나 최근 일부 주민 중에는 다수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고 개인적인 결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남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적고 비판적이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백안시하는 사례도 있어서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나타난다. 단면 대상자 모두(L1, L2, H, B, G)가 이 마을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공동체에서는 의사결정방법으로 만장일치 방법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례가 많으나(FIC, 2007; Choi, 2008; 최정신, 2008; 조정현·최정신, 2009b),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 전체가 만장일치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협조적이고 마음이 겸허한 사람들만이 모인 집단일 때만 가능하다. 유도피아가 아닌 한 현실에는 그러한 집단은 없다. 현실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마련이다(L1)” “넓게 본다면 갈등은 단지 계획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G)” 하고 의견 차이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주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에 실망하여 처음에 웨르셀 마을에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주민들(L1, L2, H) 중에서도 최근에는 마을에 자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적어져 L1과 H부부처럼 주로 여름에만 마을에 가서 지내고, 대신 예테보리 시내에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L2에 의하면 웨르셀 마을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설득하기도 하고 당사자 간에 서로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4. 웨르셀 마을 설립초기의 이념과 현실

### 1) 설립초기의 이념과 현실과의 차이

웨르셀 마을로의 이주 후 생활이 이미 10여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물리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립초기의 이념,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물리적 차이에 있어서는 대지의 사유화와, 보다 생태적인 마을로의 건설 요구에 대한 장애가 대두된다. L1과 L2의 의견처럼 처음 마을을 계획할 당시에는 대지를 조합의 공동소유로 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대지를 모두 분할하여 개인소유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지의 사유화가 개인의 권리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마을의 협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H의 경우에는 생태적인 삶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마을에 생태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나 솔라 패널 등을 설치하기를 제안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소음이 시끄럽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여 실행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L1과 H의 주택에는 잔디지붕, 태양광 집열판, 발효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는 생태적인 주택과 생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 전체를 위한 추진에는 장애에 부딪친 점을 아쉬워 한다.

이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일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L2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독립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였던 초

기의 기대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려면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므로 웨르셀 마을에 자주 가기가 어려워 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 초기에는 운영위원회의 총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주민 간에 의사결정이 너무 어렵고 날로 깊어지는 갈등에 실망하여 현재는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은 직장에서 은퇴한 후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면서 노후 여생을 보내고 싶었으나 웨르셀 마을은 도시와 너무 격리되어 있어서 그러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며 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 희망자가 있으면 집을 팔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면담 대상자 모두가 주민 간에 의견 모으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며 초창기에 가졌던 이념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은 연구자에게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웨르셀 마을의 현실을 볼 때, 출발할 때부터 각자의 비전이 달랐고 공동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달랐으므로 이 점이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생태마을을 설립할 때부터 주민 전체가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동시에 출발했었다면 현실 생활에 있어서 이념을 공유하고 차이를 줄이기에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2) 웨르셀 마을의 의의

앞에서 보듯이 웨르셀 마을이 설립초기의 이념과 현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웨르셀 마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할 수 있다.

기존 사회에서는 주택을 짓기 위하여 은행의 대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도를 제출해야하고 그 건축 작업도 일시에 완성되어야하므로 초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짓고 나면 더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투자하여 그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소모지향적인 반 생태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웨르셀과 같은 생태마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성된 도면의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 서서히 자기의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것으로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좀 더 여유 있고 여력에 맞는 생활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웨르셀 마을의 이런 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L2와 B도 인정하듯이 비록 현재의 웨르셀 마을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생활하고자 했던 초기의 이념이 많이 쇠퇴되었고 주민 간에 불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교적 가난한 예술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집을 짓고 10여 년에 걸쳐 마을을 형성해 왔다는 점

은 웨르셀 마을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생태마을에서의 생활 또는 생태적인 삶을 현실로 옮기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태마을에서 사는 일은 남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본인이 스스로 살면서 경험해 보고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웨덴 웨르셀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마을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실태와 현실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으로 국내에 계획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얻은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르셀 마을 형성과정의 특징은 1995년 설립당시에 사회적으로 회자하던 생태적 삶에 대한 요구와 가난한 예술인들이 아틀리에를 겸한 영구적인 주택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부합되어 출발되었다는 점이다. 마을의 형성과정에서 미래주민과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흠집 짓기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사회의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시작되었다.

둘째, 웨르셀 마을의 설립과정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마을을 계획하고 각자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서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축제나 공동식사 등의 주민 공동활동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참여도도 높았다. 따라서 설립당시의 주민참여는 적극적이었고 상호간에 이념의 공유와 친화도도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의 주민 공동활동은 약화되었고 그 원인으로 일상적인 개인생활의 영위, 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장시간의 과정, 참여해야할 크고 작은 공동작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운영위원회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민을 강제적으로 회의나 작업에 참여시키는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도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공동체 생활의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은 딜레마가 될 것이다.

셋째, 웨르셀 마을의 설립 시의 이념과 이를 실현하는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념적 가치의 실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도 나타난다. 생태마을의 이념은 개인이 저성장 사회(slow growth society), 저가 생활(low cost life)을 통하여 생활비를 줄이고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은행의 대

여금을 갚기 위하여 인근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을 찾게 되었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초기 이념의 실현에 차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많은 생태마을들이 기존사회의 대안적인 사회로서 존재한다는 현실은 그들이 기존사회의 규칙이나 생활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실천방법을 기존사회에 더 쉽고 빠르게 파급시켜준다는 교육적인 측면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생태마을 주민들이 인간이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3R" 운동의 생활양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실천이 기존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웨르셀 마을의 주민생활 사례를 통하여 국내의 생태마을 설립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공동체 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이념의 공유방법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계획공동체의 설립이 초기단계이고 이의 실천사례도 서구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비록 다른 문화를 가진 스웨덴의 사례일지라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마을 내에서 주민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고 설득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계획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웨르셀 마을에서도 현실적인 고충으로 부각되었다. 공동체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자체가 마을의 이념과 의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들어주어야 하는데 새 주민이 이주해올 때마다 이념적인 관점을 반복하여 의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편의 사례연구(Marcus, 2000; Meltzer, 2000, Birgersson, 2000)들에서도 대부분의 생태마을들이 협동과 갈등에 대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내에서도 계획공동체의 설립 시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갈등해소기술을 개발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연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 생각한다. 즉, 주민 워크숍에 대한 선행연구(조정현·최정신, 2009a)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점을 감안하여 마을의 설립 초기당시부터 주민대상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차후에 공동체 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최근 국내에서도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관련주제가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고 생태마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태마을의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오염으

로부터 자연환경의 복구, 커뮤니티 지향성의 강화,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중시,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이념 등은 아직까지 고성장 사회만을 추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 온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다루는 주제의 상당부분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일반인들이 주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아이디어가 강조되어야 하는 생태마을의 삶과 실천에 대한 내용은 간과되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태마을에 사는 것만이 반드시 생태적인 삶은 아니며 생태적인 삶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소비패턴을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생태적인 삶의 실천이 오히려 쉬울 수 있으나 자원이 풍부하고 고성장 경제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3R"의 실천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경제사회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태적인 삶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최근 국내의 여성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환경프로그램의 개발은 주목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배출하는 탄산가스의 양을 계산하고,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계획하는 이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의 실천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실천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얻은 반성자료를 자기 스스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태마을이 아닌 기존사회에 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운동, 환경운동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웨르셀 마을의 경우에 마을의 설립과 주민의 이주 과정이 서서히 진전되어 초기에 이주한 주민과 나중에 이주한 주민 사이에 마을설립 이념의 공유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계획공동체에서 이념의 공유가 차후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해 본다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계획공동체 중에서도 코하우징의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동시에 계획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설립초기부터 이념을 공유하고 공동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주 단계에 들어가는 반면 생태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서서히 이주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활이 동시에 시작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태마을과 코하우징을 겸한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이념의 공유가 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의 접근이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곽유미 · 조정현 · 최정신(2005). 독일 친환경주거 사례연구- 프라이브르크 보봉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43-248.
- 오영식(2002). 이용자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태백시 상장동 학마을 사례.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현 · 최정신(2009a). 코하우징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사례,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논문집, **27(6)**, 155-169.
- 조정현 · 최정신(2009b). 미국 코하우징의 주민참여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33.
- 최정신(2008). 국내계획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5)**, 93-102.
- 최정신(2007). 한국인 50대의 노인용 코하우징 공유공간과 공동활동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131-139.
- 최정신 · 이언 폴손(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적용과 개발. 집문당.
- 최정신 · 조재순(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논문집, **24(1)**, 117-128.
- 최정신 (2005).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149-160.
- 최정신(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 (2)**, 129-138.
- 최정신(2001). 스웨덴의 환경운동과 생태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4)**, 75-84.
- 한주희 · 최정신(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제안-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와 모의실험을 기초로-. 대한가정학회논문집, **43(11)**, 73-96.
- 홍서정 · 전남일(2004).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 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17-122.
- Ambrose, I. (1993). *Etablering af seniorbofællesskaber, Erfaringer fra tre projekter i Odense (Establish senior cohousing, lessons from projects in Odense)*: Statens Byggeforskningsinstitute.
- Birgersson, L.(2000). *Konsten att Ta Sin Plats-om Skärkäll I Bohuslän(The Art of Taking His Spot-on Skärkäll in Bohuslän)*. Arkitektur, Chalmers Tekniska Högskola. 10-30.
- Choi, J.S.(2008).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Life in Foreign Intentional Communities,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Ecovillage and Co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9(2), 93-105.
- Cho, J.H. · Lee, D.S. & Choi, J.S.(2008).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mmon Activities in Intentional Community: A Case of Mindr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9(2), 107-116.
- Choi, J. S. (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 Choi, J.S. & Paulsson, J. (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Proceeding of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55-73.
- FIC(2007). *Community Directory* (2007). Rutlege.
- Dawson, J. (2006). *Ecovillages, New frontiers for sustainability*. Green Books Ltd. UK.
- Drakenberg, K. · Sonnsjö, M. & Windahl, K. (1992). *Det kretsar kring huset: Skärkäll -en skissprocess med ekologisk inriktning (A Sketching Process with Ecological Intentions)*. Chalmers University, Göteborg.
- Glass, A.P.(2009). Aging in a Community of Mutual Support: The Emergence of an Elder Intentional Cohousing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 283-303.
- Jensen, S. P. (1994).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Copenhagen, Denmark, 8-13.
- Koyabe, I. (1994).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design of housing, a study of the Swedish collective house Färdknäppen*. PhD. Thesis, KTH, Stockholm.
- Kozeny, G. (1996). *Intentional communities: lifestyles based on ideals, Community Catalyst Project*. San Francisco, California.
- Kwak, Y.M. · Cho, J.H. · Hong, S.J. & Choi, J.S. (2007).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of an Eco-Friendly Village-A Case Study of Ansolgi Village. *APNHR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117-118.
- Lucas, C. (2006). Forward of ecovillages, by Dawson, *New frontiers for sustainability*. Green Books Ltd. UK.
- Marcus, C. C. (2000). Site Planning, Building Design and a Sense of Community: an Analysis of Six Cohousing Schemes in Denmark, Sweden, and Netherland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89-119.
- Meltzer, G. (2000). Cohousing: Verify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ism.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110-132.

Wann, D. (2005). *Reinventing community*. Fulcrum  
Publishing.

Windahl, K. (1993). *Lerjordsbygge på Skärkäll: rapport från  
en introduktionskurs I lerjordsbygge (Building on  
Skärkäll: Report of an introductory course in clay  
constructio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Göteborg.

서울신문(2009). 06. 27. 3면.

<http://211.115.218.173>

[http://hem.www.fyrlistorg.com~Kollektivhus och Ekobyar  
in Sverige](http://hem.www.fyrlistorg.com~Kollektivhus och Ekobyar<br/>in Sverige)

[www.gen-europe.org](http://www.gen-europe.org)

[www.ic.org](http://www.ic.org)

[www.canong.or.kr](http://www.canong.or.kr)

[www.ecovillage.or.kr](http://www.ecovillage.or.kr)

[www.cohousing.org](http://www.cohousing.org)

- 접수일 : 2010년 09월 14일
-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21일